

#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 상담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기관 관계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김민선<sup>1\*</sup>, 송영호<sup>2</sup>

<sup>1</sup>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sup>2</sup>한양대 ERICA캠퍼스 글로벌 다문화 연구원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unseling and Career Support Programs for Late-Adolescents with Migration Background: Focusing on Interviews with Officials of Youth Support Institutions with Migration Background

Min Sun Kim<sup>1\*</sup>, Youngho Song<sup>2</sup>

<sup>1</sup>Department of Department of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Dankook Univeristy

<sup>2</sup>Institute Of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 Studies, Ha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기관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 과정에 필요한 상담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기관의 관계자들 4명을 대상으로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사용하여 기관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이주배경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에 대한 지각과 상담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총 3개의 주제와 16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다양성',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의 불안정과 어려움',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및 진로프로그램 운영의 실태와 한계'. 본 연구는 성인기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제언을 위해 기관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어려움과 현장의 요구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아동이나 초기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들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확대와 필요성을 제기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career and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 for late adolescents from a migration backgrou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our people, including youth with a migration background and workers from institutions who mainly meet young people. Using thematic analysis, experts analyzed the difficulties of young people in the context of migration and their opinions on the development of career and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s. A total of three topics and 16 sub-topics were derived as follows: 'Diversity and need for negative perceptions of young people from migration backgrounds', and 'Insecurity and difficulties in the situation faced by young people from migration backgrounds'. Career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programs for young people from a migration background were suggested based on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Keywords** : Adolescents from Late Adolescence Migration Background, Need for Adult Transition, Counseling and Career Support, Interviews with Institutional Officials, Qualitative Research

본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3A2A02096860)

\*Corresponding Author : Min Sun Kim(Dankook Univ.)

email: 12191720@dankook.ac.kr

Received May 24, 2023

Revised June 22, 2023

Accepted July 7, 2023

Published July 31, 2023

## 1. 서론

국내 거주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하위유형이 본인 또는 부모의 이주 배경, 이주 시점, 학교 진학 여부 등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11월 외국인 주민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자녀는 총 289,529명이며 국내출생이 273,722명, 귀화 및 외국국적이 15,807명으로 국내출생 자녀의 비중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중도입국 자녀들의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552,812명, 초등학교 2,664,278명, 중·고등학교 2,610,776명으로 청소년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2]. 한편, 아직 연구나 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주로 아동이나 초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후기 청소년들이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나 진로선택의 어려움, 가족 형성, 사회참여 등의 한계를 제대로 지원하고 조력하기 위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성인 이행기인 후기 청소년기에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진학이나 진로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사회적응이나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3,4] 발달적 관점에서 전환의 과정을 조력하고, 예방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5,6].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와 성인기 전환 단계에 있는 19세에서 24세 사이의 후기 청소년들을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지칭하였다. 이들은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 외국인이고,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입국한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주배경을 가진 1.5세대나 2세대들을 대상으로 이주배경으로 인한 환경적 제약이나 정체성 갈등, 심리적 어려움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7-15].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후기 청소년기에서 청년기에 속하는 이주배경 1.5세대 혹은 2세대들의 교육경험, 삶의 질, 직무만족도 등 한국에서의 경험과 만족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일부 연구들[16]은 후기 청소년을 포함해 성인기 이주배경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 경험을 다루면서 이주배경으로 인한 환경적 제약과 그로 인한 심리 및 사회적 어려움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크게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어려움, 진학 및 진로 선택의 한계로 나눌 수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한국어의 어려움을 포함한 문화적응[8,10], 정체성 갈등[11], 차별 경험[7,11,15] 등을 보고하였다.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귀화의 문

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본인의 정체성과 사회의 인식 사이의 간극에서 오는 갈등, 한국에서 경험하는 타자화 등으로 본인의 발달과업에 온전히 집중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16-18]. 특히 일상이나 학교, 직무현장에서 경험하는 명시적 혹은 미묘한 형태의 차별은 위축, 무기력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16]. Rumbaut과 Komaie[19]의 연구에서 성인 전환기 이주배경 1.5세대들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류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유와 높은 삶의 질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기 청소년기를 경험할 수 있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도입국 청년들의 경우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떨어져 지낸 부모와의 관계 재정립이나 새로운 가족 구조의 적응 등의 어려움을 함께 호소하며 가족이나 부모의 실제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았다[9]. 이처럼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선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할 수 있으며 상담에서는 실제적인 사회적 지원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교육과 진로 경험의 부족[8,10,11], 공교육 진입의 어려움[11,20], 비자 문제와 취업의 제약[7,20,15], 부모의 정서 및 사회적 지원이나 정보제공의 어려움[7,9] 등을 경험하였다. 19세 이상에서부터 34세 미만의 이주배경 청년들의 진로선택 경험을 살펴본 김민선 등[7]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경우 진학, 진로 및 직업선택, 대인관계 등 일반적인 청년기 발달과업을 경험하면서도, 이주배경으로 인해 언어, 심리·사회적 자원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학이나 진로선택의 과업을 직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선주민들과 비교해 진로선택과 취업에 있어 높은 진로장벽을 인식하며, 경쟁에 대한 위축과 두려움, 문화적 차별에 대한 불안감 등의 정서적 어려움과 함께 만성적인 진로 미결정을 경험할 수 있다[13]. 또한 진로결정의 어려움은 안정적인 성인기 정착과 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고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21].

문제는 이주배경 청소년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 직업 선택, 결혼, 사회참여 등에 대한 상담 및 진로 지원을 제대로 받아 본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센터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한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상을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학령기 학생들에 맞춰져 있어 후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자립, 진학과 직업교육, 사회생활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 못하다. 이 때문에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기회들이 제한적이며, 체류 조건과 비자 등의 문제로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에서도 배제되는 경우들이 많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된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메타연구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아동,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22]. 또한 한국어 교육 등 한국 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과 청소년기 교육 및 진학, 진로선택을 조력하는 진로선택 이전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인 이행기 다양한 발달영역(예, 사회적 관계, 직장생활, 학업, 자립을 위한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 이후 직업 이동과 경제활동, 혼인 등의 가족 형성에 관한 청년기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청년 일반층을 대상으로 한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서구 이주민의 비율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이주민들의 적응을 조력하기 위해 언어에 대한 기초 교육이 우선 실시되며, 특히 자녀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공교육 체계로의 진입과 취업 및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세분화되어 제공된다[23]. 또한 다인종 및 민족, 난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으며,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를 다루거나 이중문화 정체성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다 [24,25]. 한국의 경우 이주배경 자녀, 특히 청소년, 그리고 성인기로 진입하는 후기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센터나 기관을 통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성인기 이행과정에 있는 후기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및 진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에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 기관 관계자들의 경험을 파악하고, 현황과 요구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그들이 지각한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을 탐색하고, 현재 운영 중이 프로그램과 한계점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기관 관계자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이행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이주

배경 청소년 기관들에서 운영하는 상담 및 진로프로그램 현황과 한계는 무엇인가?

## 2. 방법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기관에 재직 중인 기관 관계자 총 4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세부터 24세 미만의 후기 청소년기까지의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인 만큼 현장의 경험을 듣고, 함의점을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인터뷰는 연구참여자 정보를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interview participants

	Gender	Age	Institution	Position	Area
Participant 1	F	40s	Public institutions related to multicultural youth	Center director	Seoul
Participant 2	F	40s	Public institutions related to multicultural youth	Team leader	Gyeonggi
Participant 3	F	50s	Public institutions related to multicultural youth	Assistant center director	Gyeonggi
Participant 4	F	40s	Public institutions related to multicultural youth	Director	Seoul

면담은 평균 90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질문을 사전에 제작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본 논문의 주저자가 작성하였으며, 상담심리학 박사 2인, 사회학 박사 2인에게 자문을 받아 수정하였다. 자문을 위해 2022년 10월~12월 사이 60분~90분 정도의 자문회의를 3회 진행하였다.

면담은 대부분 참여자들의 센터나 인근 지역의 회의실

에서 이루어졌으며, 한 사례의 경우 일정상 대면 면담이 어려워져 줌(Zoom)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인터뷰 질문의 예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Interview questionnaire

Questionnaires	
Introduction ques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ho are immigrant adolescents you usually meet? Please tell me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olescents who come to your center.</li> <li>What are some difficulties you have experienced running an institution?, What is rewarding?</li> </ul>
Migrant adolescents' adult transition exper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hat is the difficulties of late adolesc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li> <li>What are the main difficulties faced by adolesc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in their late adolescence in the process of adapting to Korean society?</li> <li>What are the strengths of late adolesc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li> </ul>
Program status and limit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hat kind of education is provided at your center?</li> <li>What do you think are the limitations of current programs?</li> <li>What do you think are th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interventions (inside and outside the institutional system) that are needed to help late adolesc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li> </ul>

## 2.2 자료분석

자료분석 전 연구자들이 가진 선입견을 배제하고, 참여자들을 통해 얻은 면담 자료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3회 연구팀 자체 회의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이전에 이주배경 후기청소년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기준에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결과 분석이나 해석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연구자들은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경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합의했으며, 후기 청소년기인 만큼 진학과 진로 관련된 주제가 중요하게 도출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더불어, 이주 배경, 지역,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경험이 다를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최대한 이주로 인해 경험하는 고유한 경험들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분석 전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연구자들이 가진 기대와 선입견을 확인하고, 분석의 과정에 개인의 주관성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면담 자료는 Braun과 Clarke[26]의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활용해 6단계 절차에 따라 특정현상에 대한 공통적인 주제들을 찾아 정리하였다. 1단계는 연구자들이 자료를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자료를 숙지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기록한다. 2단계는 초기 코딩 단계로서 자료에서 연구문제와 관련된 특징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단어로 코딩한다. 3단계는 주제 찾기 단계로서 2단계에서 코딩된 아이디어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큰 주제들과 이를 구성하는 하위주제들로 초기 분류해보는 단계이다. 4단계는 주제 검토 단계로, 각 주제와 이를 구성하는 하위 주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며 연구 문제에 따른 주제가 큰 그림(맵)으로 표현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5단계는 주제 정의 및 이름을 지정하는 단계로, 각 주제의 세부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을 구체화 하고 각 주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름을 생성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6단계는 기술 단계로서 최종 분석 내용을 분석의 배경과 연구자의 전문성 및 관련 문헌과 결집하여 최종 정리 및 기술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주제분석 방법은 데이터 수집과 분석과정 속에서 자료 내의 패턴화된 반응이나 의미수준을 기술할 수 있으며 주어진 자료를 반영하는 제한된 수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데, 분석과정 동안 수집된 자료, 코딩 추출물, 분석 내용들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오가며 살펴보는 과정이 요구된다[24].

최종적으로 도출된 결과는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전문 교수 1인의 검토를 받아 수정하였다. 자문결과 주제 안에 포함된 하위주제가 이질적이라는 피드백이 있었으며, 일부 하위주제를 다른 주제 안에 포함시키거나 삭제하였다.

## 3.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연구결과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다양성',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불안정과 어려움',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및 진로프로그램 운영의 실태와 한계' 총 3개 주제와 16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Table 3. The need to develop career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programs for late adolesc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

	Category	Subcategory	
1	Diversity of late adolesc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	1-1	Individual differences in immigration motives and adaptation
		1-2	Differences in adaptation by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1-3	Age of entry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adaptation
		1-4	Differences in adaptation according to personal background o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2	Instability and difficulties faced by late adolesc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	2-1	Experiencing identity confusion
		2-2	Insufficient preparation of documents for public education enrollment
		2-3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college admission
		2-4	Visa and immigration status issues
		2-5	Difficulty in learning Korean language
		2-6	Poor family conditions and lack of parental help
		2-7	Social distress and limitations in personal growth
3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counseling and career program for late adolesc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	3-1	Operation of counseling programs and the uniqueness of multicultural counseling
		3-2	Programs for academic and career guidance
		3-3	Low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3-4	Need to develop and supplement counseling programs suitable for immigrant background adolescents
		3-5	Insufficient support for immigrant adolescents in accessing employment opportunities

### 3.1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다양성

기관 관계자들은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이주배경 가정 자녀들이 점차 다양해지고, 하위유형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욕구를 잘 이해해 접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주배경 가정 자녀들에 대해서 적응이 어려운 집단으로 보는 것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이주배경 청소년 안에서도 적응을 잘하는 비율이 높으며, 그들이 가진 강점(예,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인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배경과 강점들을 잘 활용해 잠재력을 확대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 3.1.1 다양한 입국계기와 적응의 개인차

기관 관계자들은 이주배경 청소년 중 중도입국청년 유형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한 계기로 입국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이주배경 청소년들 안에서도 한국에서 진학을 원하는 그룹이 있지만 경제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오는 그룹도 있어 일부 청소년들은 한국어 교육이나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기가 낮은 편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라는 가정 역시 이주배경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일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서는 안 되며, 한국인으로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이주배경 집단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는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

“보통은 이제 안 그런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주 전 국가에서 생활을 힘들게 하시던 분이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이혼을 한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 돈을 벌러 오시죠. <중략> 그쪽에 아이를 맡겨놨는데 안정이 돼서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자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고 지지 체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쪽에 맡겨놓은 조모나 이제 친인척이 “이 친구를 이제 더 이상 못 본다” 해서 들어오는 일도 있거든요.” (참여자 4)

#### 3.1.2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적응의 차이

기관 관계자들은 중도입국 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서 적응의 정도가 차이가 있고, 시기별로 다른 욕구들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난이도 역시 입국 초기 경험하는 기초과정,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하고 경험하며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중간과정, 실천을 위

한 개인 및 사회적 자본들을 확보한 이후의 과정들로 구성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 들어온 학생들은 한국어가 미흡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기대감 또 K문화에 대한 환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부모님들을 헤어졌다 만나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보겠다라는 것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는 좀 초반에는 괜찮은 경우들이 많고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한국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부모님들의 상황, 나의 지금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다시 이제 꺾이는 (것 같아요).” (참여자 1)

### 3.1.3 입국 연령과 적응의 어려움

여러 기관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입국 연령에 따라서 적응에 차이가 있으며, 보통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입국한 학생들일수록 적응이 좀 더 수월하다고 언급하였다.

“고등학교 애들은 학교 찾기가 어려워서 1년~2년 시도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검정고시 보겠다’ 아니면 ‘그냥 바로 취업하겠다’ 이런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위탁 대안학교가 많아서 교육청 통해서 학교에 들어가고 대안학교까지 가는데 고등학교 연령에 오는 친구들은 머리가 복잡하죠. 학교를 찾아야 하는데 언어도 안 되고 고등학교들도 그런 대안학교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참여자 2)

### 3.1.4 개인 배경이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적응 차이

기관 관계자들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가진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관심, 개인의 성격이나 태도 등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적응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원인을 이주 배경으로만 한정 짓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한국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유사점이 많다고 언급하면서 일부 문제는 계층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인의 의지나 빨리 배우고, 빨리 적응하겠다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부모들의 인식 자체도 예전에는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보다는 ‘한국에서 좋은 직업을 갖고 이제 좀 나은 삶을 살아야지’로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

“결국 이게 계층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제다는 아닌데 늘 다문화 가정이라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프레임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됐잖아요. 근데 저희가 경험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난 친구들은 주로 가정 안에서 그게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적응을 잘하는 아이들과 있어요.” (참여자 2)

## 3.2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의 불안정성과 어려움

### 3.2.1 정체성 혼란 경험

기관 관계자들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과 다르게 정체성의 문제를 경험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성인기 전환 과정에서 외국인 혹은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 문제를 고민하고, 갈등을 경험함을 의미한다.

“결국에는 정체성의 문제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는 처음에는 왜 나는 다를까 이렇게 시작했던 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과의 연대 관계 안에서 그걸 좀 자기 스스로 해석해 나가더라고요.” (참여자 3)

### 3.2.2 공교육 입학 서류 준비의 미비

기관 관계자들은 중도입국 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본국에서 공교육에 진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지 못한 채 들어오기 때문에 서류의 미비로 한국 학교에 바로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류 준비를 지원해 줘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되게 중요한 사업으로는 아이들이 학교 밖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준비 없이 데리고 오시다 보니까 사실은 졸업 증명서라든지 성적 증명서라든지 이런 아포스티유 학력 증명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오셔야 되는 데...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공교육으로 바로 진입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는 공교육에 진입하는 게 맞다 주의예요. 왜냐면은 아동·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성장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도 그냥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참여자 4)

### 3.2.3 대학 진학과정에서의 어려움

기관 관계자들은 대학 진학 과정에서 진학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으며, 자아나 진로탐색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 뿐 만 아니라 실제로 진학과 관련된 개별 컨설팅과 상담을 해주는 현실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저희가 계속 그 문제들을 안고 대학 진학과 관련된 올해 이제 대학 진학 바뀐 진학 설명회 설명서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급이 이제 진행이 될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대학의 입시 전형 이런 것들을 중국어, 베트남, 러시아어로 만들고. 진학 관련된 정보들 네 그런 것도 너무 잘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리고 컨설팅하는 걸 내년도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어요.” (참여자 1)

### 3.2.4 비자와 체류자격 문제

기관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국적이나 영주권이 없는 중도입국 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비자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데 큰 제약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비자의 문제로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체류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를 경험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비자 등의 체류 자격의 문제나 지원제도의 미비는 청소년들에게 진로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비자의 문제나 24세 미만의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취업정책 대상에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함께 포함하는 논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냥 이 친구들이 좀 타국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게 자기의 미래를 계획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압박감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게 체류 자격이 완화되는 그런 기준을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참여자 4)

### 3.2.5 한국어의 어려움

기관 관계자들은 한국어의 어려움이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어를 잘하더라도 직장에서 사용하는 한국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상황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 3.2.6 열악한 가정환경과 부모 조력의 부재

기관 관계자들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가정환경의 특

성을 언급하면서 부모가 한국에 이주해 새로운 사람과 가정을 이룬 경우 청소년들이 중도에 입국해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가족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성인이 되었더라도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적응에는 가족의 배경과 자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양부나 양모도 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들이나 형들이 있고 이런 상황에 아이들이 너무나 자기 스스로도 낯선데 그 가정환경도 너무 낯설어 가지고 초기에는 굉장히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있겠나 내가 이 언어를 어떻게 배우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참여자 4)

### 3.2.7 사회적으로 위축과 성장의 제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경우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언어적 제약, 가족들의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한국 청소년들이 여러 번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망설이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진로 정보들을 물을 때 정보원을 알더라도 다가가서 질문하거나 실패했을 때 재도전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더라도 이제 언어적으로 이제 의사소통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쉽게 위축될 수 있잖아요. 위축되다 보니까 한 번 더 이제 물어보면 되는 부분들을 쉽게 포기하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자꾸 찾다 보니까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되는 것들이 있죠.” (참여자 1)

## 3.3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및 진로프로그램 운영의 실태와 한계

### 3.3.1 심리상담 제공과 다문화 상담의 특수성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에서는 주로 개인상담 형식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통역사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일부 기관에서는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개인상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나 상담 통역의 어려움들을 호소하기도 하여 기관에 따른 편차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가장 큰 제약으로 언어와 상담에서 사용하는 용어(예, 정서 표현)가 이주 이전의 국가에 없는 경우 내담자와 소통하기가 어렵고,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가 상담 쪽에서는 지원 구축을 이렇게 체계화하는 거 좀 상당히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 도구 만들고 매뉴얼 만들고 직원 양성 기관 관계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전국 단위에 진짜 각 상담사를 두고 있고 이러한 어떤 저희 보통 매월 1회는 전 활동하시는 이쪽 팀 상담사 선생님들이 사례 회의를 진행을 하고요. 사례 공유하고 또 워낙 사례가 다양 그러니까 일곱 유형이기는 하지만 또 배경 자체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누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는 외부 수퍼바이저 모셔서 수퍼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1)

“저희는 일단 저희는 트라이앵글이에요. 교육, 정서, 자립이라는 이 트라이앵글. 저희가 5대 분류를 진행을 하는데 정착 기반 사업은 이제 누구나 우리 센터를 이용하려면 초기 상담을 받아야 돼요. 초기 상담을 받아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 필요한 욕구 그리고 보호자의 욕구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을 초기에 인터뷰를 하고 이제 그거 정착 기반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서 필요하다면 사례 관리가 들어가는 복합적인 문제와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사례 관리를 하는 거고요.” (참여자 4)

### 3.3.2 학업과 진로선택 조력을 위한 프로그램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실제 지역 사회 회사들과 협약을 맺어서 기술을 배우고 실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러한 직업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언급한 반면에 지역이나 기관의 규모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원을 마련하기 힘든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말 저희는 최신 트렌드에서부터 옛날 직업군까지 (교육을 시켜요.) 비자 변경을 하려면은 세탁 기능사 이런 자격증을 따면은 비자가 이제 거주 가능 비자가 좋은 게 또 받거든요.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전통적인 것에서부터 아주 최신 것까지 정말 다양하게 다 VR 체험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다 데리고 다니면서 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딱 터져서 저희도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참여자 4)

### 3.3.3 낮은 참여 동기

기관 관계자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동기가 낮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있고,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더라도 부모가 가치가 다른 경우 센터의 한국어 교육이나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힘들다고 언급하였다.

“정말 어려운 점이예요. 그 점이 그런데 그 점은 보호자의 가치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보호자분이 특히 ○○ 같은 경우에 최고의 가치가 머니예요. 머니 그냥 학교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돈을 많으면 그게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는 100살까지 살 거고 120살까지 살 수도 있으니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 달라 이렇게 부탁을 많이 드려요. 이 친구가 지금 당장은 공장에 들어가서 정말 12시간 일해서 300만 원을 벌 수 있을지 점 그거 이 아이의 삶의 의미가 있는지 그것만을 계속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아이가 행복할지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봐 달라 이런 얘기” (참여자 4)

### 3.3.4 이주배경 집단에 맞는 상담프로그램 개발과 보완 필요

참여자들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서 청년들을 상담하기 위한 상담자들을 교육시키거나 통역사들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수한 집단에 대한 접근을 내가 한번 해보겠어라고 했다가는 진짜 낭패고 그거는 실패가 아니라 그건 정말 그 한 영혼을 해치는 결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 인권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충분한 공부와 훈련 그리고 이런 활동가들 기관 관계자들과의 연대가 반드시 밑바탕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했을 때는 정말 큰 역효과가 있을 거고 저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할 때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되죠.” (참여자 2)

## 3.5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노동현장 진출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 어려움

일부 참여자들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비자나 노동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토로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법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지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 차

별받는 거를 들어주는 신문고 같은 그런 것도 있어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참여자 1)”

####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이행과정에 있는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로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센터의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성인기 이행 과정과 진로 및 상담 프로그램 현황과 욕구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다양성’,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의 불안정성과 어려움’,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및 진로프로그램 운영의 실태와 한계’이 주제로 도출되었다.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을 살펴보고자 했으며 주제 1과 2에 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주제 1(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다양성)에서는 ‘다양한 입국제기와 적응의 개인차’,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적응의 차이’, ‘입국 연령과 적응의 어려움’, ‘개인의 배경이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적응 차이’가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주제 1에서 기관 관계자들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하위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한국 입국 시기, 국가 등에 따라서도 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산업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이주했던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27] 1.5세대와 2세대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학습경험과 직업의 기회를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들 중에서도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문제의 원인을 이주배경으로만 귀인하는 것이 집단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적 수준, 부모의 지원여부 등은 적응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8-30]. 김민선, 김재훈, 고은영[7]의 연구에 따르면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경제적 안정성이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가져오고, 교육이나 훈련 기회, 직업 전환 준비를 위한 여유 기간 등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청소년

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 열악한 가정 경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의 영향력을 면밀히 파악해, 사회적 네트워크나 정보 등을 확대하고 지역이나 국가 차원에서 열악한 상황을 완충시켜줄 수 있는 지원체계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제 2(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불안정과 어려움)에서는 정체성 혼란 경험, 공교육 입학 관련 서류 준비의 미비, 대학 진학과정에서의 어려움, 비자와 체류자격 문제, 한국어의 어려움, 열악한 가정환경과 부모 조력의 부재, 사회적 위축과 성장의 제한이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주제 2에서 도출된 내용들은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국내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후기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 진학과 취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독특한 어려움으로도 볼 수 있다. 김진선 [31]의 연구에서도 이주배경 가정 청소년들은 본인의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조차 어려웠으며,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들은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은 성공 경험을 찾고, 학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처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는 심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어, 체류자격, 공교육 입학 서류의 준비, 대학 진학에 대한 정보제공 등 보다 실제적인 도움이 진로상담의 과정에서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즉, 일의 심리학 이론(Psychology of Working Theory)[32]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기존 전통적인 상담심리학에서 언급하는 진로 상담의 주제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속한 환경과 그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배제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진로나 심리상담에서는 개인이 환경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차별이나 배제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개인의 문제로만 귀인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기관들에서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관계자들이 인식하는 프로그램의 한계와 제언 등을 살펴보았으며, 주제 3에 관련 내용들이 도출되었다. 주제 3(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및 진로프로그램 운영의 실태와 한계)에서는 상담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 상담의 특수성, 학업과 진로선택 조력을 위한 프로그램, 낮은 참여 동기, 이주배경 집단에 맞는 상담프로그램 개발과 보완 필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노동현장 진출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 어려움이 도

출되었다.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직원들이 가지는 문화 감수성, 인종적 편견과 부정적 선입견[33-35] 등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경력이 10년 이상 된 기관 관계자들 역시 문화적 배경이 다른 대상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문화 차(예, 종교), 소통방식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상담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현아[36]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상담 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이 다문화상담자로서 가지는 효능감이 다문화수용성과 자질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였다. 따라서 상담자로서의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다문화 교육 및 재교육뿐만 아니라 다문화 감수성과 수용성 증진 및 상담에 대한 교육과 슈퍼비전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노동 현장 진출에 대한 지원, 이주배경 집단에 맞는 상담프로그램 개발과 보완이 주요 내용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진학과 훈련, 취업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아동 및 초기 청소년기에 맞춰져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방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센터들이 제한되어 있고 재정 역시 불안정하거나 열악한 상황에 있으므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청소년이나 청년 지원센터들 안에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예산이나 프로그램들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들이나 실제적인 교육과 훈련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경우 비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의 문제로 사업주들이 채용을 기피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는 경우들도 있었다. 정책 입안에 있어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가진 발달단계의 특성과 진학과 훈련, 취업이 가지는 의미를 깊이 공감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낮추는 교육들이나 캠페인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 및 실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성인기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제언을 위해 기관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어려움과 현장의 요구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아동이나

초기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들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확대와 필요성을 제기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입국 시기가 다소 늦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어의 어려움, 공교육 진입, 비자, 가족 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들 안에서도 취약할 수 있는 집단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예방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중요한 시기 적응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이주배경 청소년 기관에 근무하는 기관 관계자들을 인터뷰하였다. 기관 관계자들의 경험이 24세 미만의 후기 청소년기까지에 한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25세 이상의 이주배경 청년들의 어려움과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주배경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들의 경우 주로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센터의 운영자들이며, 일부 센터들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들이나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센터들까지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기관이 위치한 지역이나 주로 방문하는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기관 관계자들의 경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기관 관계자들이 접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 지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년들을 만나는 전문가들이나 센터들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이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심리적 응과 진로발달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연구 질문 자체에 적응이나 진로선택의 어려움을 가정하는 내용의 질문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인터뷰 결과 이주배경 청소년들 안에 다양한 하위집단이 있을 수 있고, 청소년들이 적응을 못 할 것이라는 가정 역시 편견일 수 있음을 다수의 참여자가 언급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질문의 내용이 좀 더 중립적인 개방형 질문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들이 가진 강점과 성공적으로 적응을 한 청소년들의 사례에 역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Status of foreign residents in local governments. 2021. Explanatory data on the status of foreign residents in local governments. Sejong: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2] Ministry of Education. 2021 Education Statistics Analysis Data Collection.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3] K. N. Kim. *A Qualitative Study on the Independence Experience of the Immigrant Youths in the Late Adolescence*. Doctoral dissertation of Hanyang University, 2019.
- [4] B. R. Choi, & J. I. Yoo. "Qualitative study on the career consciousness and career choice of youth with migrant backgrounds", *Institute of Multicultural Child and Youth*, Vol.1, No.1, pp.87-111, 2016.
- [5] Arnett, J. J.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Vol.55, pp.469-480, 2000.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55.5.469>
- [6] Arnett, J. J. *Emerging Adulthood*.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7] M. S. Kim, J. H. Kim, & E. Y. Koh.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on Career Choice in Adulthood Experienced by Multicultural Young Adul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5, No.1, pp.111-141, 2022.
- [8] J. M. Kim, & S. G. Han. "A Study on Learning Experience of Multicultural Alternative School for Immigrant Youths",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IJACE)*, Vol.18, No.1, pp.157-184, 2015.
- [9] J. H. Kim, M. S. Kim, G. R. Song, S. H. Lee, & J. H. Song. "A Consensus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xperience of Family Relations and Its Impact on Young Adults with a Multicultural Families",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Vol.11, No.4, pp.79-110, 2022.
- [10] J. H. Kim, J. Y. Kim, & J. H. Kwon. "A Qualitative Understanding on Learning Life and Educational Needs of Young Adul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17, No.2, pp.61-88, 2021.  
DOI: <https://doi.org/10.26857/JLLS.2021.5.17.2.61>
- [11] J. H. Kim, R. M. Lee, & J. H. Kwon. "A Qualitative Study on Self-Identity of Young Adul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14, No.1, pp.117-146, 2021.  
DOI: <https://doi.org/10.14328/MES.2021.3.31.117>
- [12] Y. H. Song, & Y. M. Choi. "Civic hierarchy and social marginalization of immigrant youth: focusing on the differences of nationality and place of birth and gender", *Journal of Social Research*, Vol.22, No.2, pp.3-38, 2021.  
DOI: <https://doi.org/10.22862/kjsr.2021.22.2.001>
- [13] H. J. Jang, S. H. Lee, E. J. Han, M. S. Kim, & K. J. Yon.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tress, Employment Barrier and Mental Health among Immigrant Youth",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Vol.11, No.3, pp.1-27, 2022.
- [14] S. J. Choi, & M. S. Kim.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Youth with Migrant Backgrounds",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Vol.12, No.1, pp.83-107, 2022.
- [15] Y. M. Choi, & J. S. Lee. *Life Experience and Settlement Plan for Young People from Migrant Backgrounds in Gyeonggi-do*. Suwon: Gyeonggido Family and Women Research Institute.
- [16] J. H. Kim, K. J. Yon, H. J. Jang, & M. S. Kim. "Discrimination Experienced of Youth Adul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23, No.4, pp.841-871, 2022.
- [17] W. I. Song, & J. I. Yoo. "A Conflict and Response Strategies on Korean Identity of Naturalized youths with Migrant Background", *The Multicultural Child and Youth Studies*, Vol.5, No.2, pp.1-26, 2020.  
DOI: <http://dx.doi.org/10.56023/mcyca.2020.5.2.1>
- [18] Y. M. Choi, & Y. H. Song. "A Qualitative Research on Microaggression Experiences and Coping-response of Immigrant Youth",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Vol.15, No.2, pp.171-204, 2022.
- [19] Rumbaut, R. G., & Komaie, G. "Immigration and adult transitions", *The future of children*, pp.43-66, 2010.  
DOI: <https://www.jstor.org/stable/27795059>
- [20] C. W. Lee, X. H. Xu, & H. Y. Cho. *The Korean Chinese Youth Population's Process of Incorporation into Korean Society and Policy Implications*. Seoul: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 [21] M. S. Kim. "Verification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Model of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Youth and Related Variables",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Vol.11, No.1, pp.27-53, 2022.
- [22] H. J. Seo, & Y. S. Oh. "A Systematic Review on Intervention Program Research fo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of Immigrant Youth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herapist*, Vol.14, No.2, pp.266-285, 2022.  
DOI: <http://dx.doi.org/10.35185/KJET.14.2.7>
- [23] S. Y. Bai, & E. H. Ko. *A Study on the Status of Migrant Youths and Supporting Their Self-relianc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pp.1-319, 2016.
- [24] Zehetmair, C., Kaufmann, C., Tegeler, I., Kindermann, D., Junne, F., Zipfel, S., & Nikendei, C. "Psychotherapeutic group intervention for traumatized male refugees using imaginative stabilization techniques a pilot study in a German Reception Center", *Frontiers in Psychiatry*, Vol.9, pp.533, 2018.  
DOI: <https://doi.org/10.3389/fpsy.2018.00533>

- [25] Pope, C. "Multicultural body-based cultural frame switching: A dance/movement therapy approach", *Body, Movement and Dance in Psychotherapy*, Vol.15, No.4, pp.222-235, 2020.  
DOI: <https://doi.org/10.1080/17432979.2020.1802334>
- [26] Braun, V., & Clarke, V.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Vol.3, pp.77-101, 2006.  
DOI: <https://doi.org/10.1191/1478088706qp063oa>
- [27] H. R. Song. "The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Foreign Workers' Remittances in Korea: Focusing on Status of Sojourn", *Multiculture & Peace*, Vol.14, No.3, pp.138-158.  
DOI: <http://dx.doi.org/10.22446/mnpisk.2020.14.3.007>
- [28] J. M. Goo, H. S. Yoon, & S. R. Lee. "The Effect of Family Poverty on the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5, pp.794-807, 2021.  
DOI: <https://doi.org/10.5392/JKCA.2021.21.05.794>
- [29] B. J. Jeon.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Acculturation Stress on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0, No.11, pp.29-38, 2012.  
DOI: <https://doi.org/10.14400/JDPM.2012.10.11.029>
- [30] S. E. Cha, & J. K. Ryu. "Asian Migration Background and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Migration Background, Barriers or Resource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42, No.3, pp.55-81, 2019.  
DOI: <https://doi.org/10.31693/KJPS.2019.09.42.3.55>
- [31] J. S. Kim. "The Problem of Perception of the Other and Space for Heterogeneous Coexistence",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Vol.12, No.1, pp.27-48, 2022.
- [32] Duffy, R. D., Blustein, D. L., Diemer, M. A., & Autin, K. L. "The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63, No.2, pp.127-148, 2016.  
DOI: <https://doi.org/10.1037/cou0000140>
- [33] J. H. Moon. "Factors Affecting the Multicultural Public Service Quality: Focused on the Perception of Workers i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Vol.29, No.1, pp.47-79, 2019.  
DOI: <https://doi.org/10.23036/kapae.2019.29.1.003>
- [34] M. E. Park, & M. R. Lee. "A Study on experience of social workers about cultural competence in social work practice", *Journal of Regional Studies*, Vol.19, No.3, pp.93-121, 2011.
- [35] S. Y. Choi.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mpetence Measure for Helping Profession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35, pp.23-53, 2010.
- [36] H. A. Kim. "The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Counsel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Multi-cultural Compet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4, No.3, pp.1717-1737, 2013.

김민선(Min Sun Kim)

[정회원]



- 2008년 8월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교육학석사)
- 2013년 8월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교육학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단국대 심리학과 재직 중

<관심분야>

진로상담, 직업트라우마, 소수자 진로경험, 다문화상담

송영호(Youngho Song)

[정회원]



- 2009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사회학석사)
- 2017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사회학박사)
- 2017년 7월 ~ 2021년 6월 :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2022년 7월 ~ 현재 :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관심분야>

국제이주, 다문화, 이주배경청년, 이주민 사회통합, 사회심리학